

전국 규모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성하자

불교계 자원봉사자 왜 안 느나?

보 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조사한 '2006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불교계 자원봉사자는 2004년 대비 1만1736명에서 1만5628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원봉사자 전체에서 불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면 2004년과 마찬가지로 19%에 머물러 증가에는 변화가 없었다. 반면 불자 자원봉사자 1명당 연평균 봉사활동 참여시간은 33.61시간을 차지해 타종교 봉사자들에 비해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성 불자는 1년 동안 평균 37.88시간을 봉사해 전체 종교인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는 전체 평균시간보다도 월등히 높은 시간이다. '양적으로는 열세지만 질적으로는 우세'인 셈이다. 불교계 자원봉사활동이 질적인 우세를 유지하며 양적 팽창을 이루기 위한 '열쇠'는 무엇인지 분석해본다.

> 봉사자, 기독교에 비해 크게 열세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불자 수는 2001년 5088명에서 2005년 1만552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은 가톨릭, 개신교와 비교해 봤을 때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원봉사자의 종교별 비율에서 개신교는 매년 약 30%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불교계는 2003년까지 21%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그나마도 2004년부터 28% 증가율을 보이는 가톨릭에 추월당했다.

가장 신도수가 많은 종단인 조계종의 경우, 지난 1995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설립 당시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매년 자원봉사자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 2천여 직할봉사단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태종복지재단도 2002년부터 매년 4차례 니르바나 자원봉사단 교육을 실시해 지금은 기본교육 수료자가 1천2백여명에 이른다.

사찰 신도회와 전국의 불교대학 출신 자원봉사자들 역시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지역 천수천안 자원봉사단과 영남지역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봉사단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재의 수치가 대해 "아직도 모자라다"라고 질타 말한다. 조성희 순천향대 교수는 "불교신도 수 대비 자원봉사가능자를 추정하면 560만여 명이 된다"며 "이들이 매달 1회 4시간 활동만 참여해도 연간 6700억원의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 지원체계 미흡... 접근조차 어려워

불자 자원봉사자 한명 한명의 열정에 비해 내실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않는 까닭

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을 하고 싶지만 활동방법을 모르고, 어디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접근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는다.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원봉사인증센터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인증센터에서 관리를 받으면 정부 통계에 불자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반영되고, 봉사자는 상해보상에 무료로 가입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인증센터는 전국적으로 2천여 개에 달하지만 불교계는 60여 개소에 불과하다. 더구나 충북·전북·제주지역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아예 없어, 이 지역의 불교사회복지시설이 열세에 놓여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박경일 교수는 "불교 자원봉사 조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친 자원봉사활동을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조직된 사찰 봉사단과 복지단체들의 현황을 파악, 원활한 정보교류를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찰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버팀목은 스님의 의지다. 불교계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사찰 스님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지지, 복지마인드가 신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이끄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은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적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 주지스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을 때, 사찰 자원봉사단은 발 빠른 사회봉사를 펼쳐며 핵심으로 자리 잡는 '힘'을 발휘한다.

지난 7월 19일 청량사 긴급수해복구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교계 자원봉사자 수는 1만 5천628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불교신도수 대비 자원봉사자 비율은 아직도 크게 부족하며, 자원봉사활동이 양적 팽창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도시락 반찬 배달, 목욕·청소봉사 등 노력봉사에 머무르는 봉사영역을 더 넓히고 전문 자원봉사자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주지 관심이 신도들 봉사로 이끄는 큰 힘 봉사인증센터 총 2000곳 중 불교계 60여곳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재교육 강화해야

원봉사단을 조직해 직접 수행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던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힘'을 발휘한 케이스이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를 위한 별도의 휴식공간이 없고 자원봉사자를 담당하는 직원은 타 업무와 겹쳐져 있는 경우가 76%를 넘었다. 이 같은 처우 역시 자원봉사자들을 단순히 업무보조로 여기고 있는 기존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60여 개의 불교자원봉사인증센터를 살펴보면 이중 자원봉사 기초교육은 86%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데 비해 재교육은 36%만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1~2차례에 불과한 교육으로는 봉사자들의 역량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무료급식봉사나 밀반찬배달봉사 같은 노력봉사가 아닌, 수지침, 상담 등의 전문 봉사봉사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전문자원봉사를 시킬 수 있는 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

> 조직관리·영역확대가 열쇠

불교자원봉사활동이 탄력을 받기 위해 불교계 자원봉사활동을 통합적으로 계획·관리하고 진흥사업을 전개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문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미 불교계 내부에는 네트워크를 조직하려는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부터 22개 사찰과 신행단체를 순회하며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해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올해 11월에 각 사찰 자원봉사단에 공문을 보내 자원봉사협의체를 조직하러 준비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

은 "조계종 사찰 뿐 아니라, 범불교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타종교의 교류와 대의협력을 통한 범불교적 전문자원봉사기구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와 구리지역 60여 개 사찰이 모여 자원봉사단을 구성한 천수천안 남양주·구리시 지부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짧은 기간 안에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스님들이 의기투합한 덕택이다.

천수천안 자원봉사단 사무총장 도원 스님(성보사 주지)은 "스님들이 사찰에 앉아 법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에게 봉사활동을 권유하고 관심과 지지를 보낼 경우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며 "스님들도 복지가 바로 포교이자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다른 방법으로 동기부여에 성공해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있는 케이스다. 연꽃마을은 통합관리 시스템을 실시하고 각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시간과 실적을 관리하며 연말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피드백'을 실시한 후 시설 자원봉사자가 매년 28%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원봉사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직까지 불자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영역이 노력봉사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영천 은해사는 지난해 사찰 최초로 간병전문 인을 양성하고 30여명의 전문간병인을 배출했다.

자원봉사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도 지난해 1월 한국케어복지협회와 서울시로부터 케어복지사 2급 양성기관으로 선정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서울 봉은사가 서울의료원과 호스피스 자원봉사 후원 및 진료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들은 "기존 자원봉사 기관이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기능교육, 지도자 관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분야를 개발하고 지역에 맞는 전문봉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혜비 기자 renv@buddhapia.com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빙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 불교심리학 ·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도사상
2년 교과목	· 법회사상· 반야사상·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선사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포교방법론

학과	교과목	교수
불교한문학과(3년)	· 육조단경·초발심자경론·한자학원론·어순으로루는한문해석·주역설문해·중국고전(1,2)·한국고전(1), 불교경전(1), 한학연구입문등	심계동(동국대교수), 김형중(동대부교법사), 심경호(고려대교수)
불교다도학과(3년)	· 한국차문화사(중국인본,유래), 계다학(1)(2), 차도문헌 연구의 현대	선혜스님, 박희준교수, 박진일교수, 지운스님, 적경스님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법, 예맥초, 보살초, 사량초등	김익홍(전동국대), 법인스님
불교장례문화학과(2년)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임종론, 불교상장예 등	김일무교수 외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주간반·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6년 7월 1일 ~ 2006년 8월 5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한문학과(정규반)50명 · 불교다도학과(정규반)50명 · 불교미술학과(정규반)3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정규반)30명	·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6년 7월 15일 ~ 2006년 9월 5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2시(미술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7시(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불교학과: 2006년 8월 5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 최봉수교수, 무진장스님

4. 개강일시 한문학과: 2006년 9월 7일 (목), 다도학과: 2006년 9월 5일 (화), 불교미술학과: 2006년 9월 6일 (수) 불교장례문화학과: 2006년 9월 5일 (화)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 부산: 부대기아서점 051) 865-4383 · 대구: 삼영불교서점 053) 425-4097 · 대전: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예전수보리 010-6636-4184

※ 특전사항: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고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